

# 벼멸구 비상... 추석 앞두고 긴급방역

## 고온현상으로 병해충 증식 밀도 상승 여수·곡성 등 수확기 피해방지 총력

전남 동부지역 시·군에서 벼멸구 피해가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들 지자체는 추석을 앞두고 긴급·특별방제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

여수시는 벼멸구 피해가 예상보다 크자 오는 8일까지 2차 벼 생육후기 벼멸구 긴급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친환경농업단지 및 일반 재배단지에 대해 벼멸구 긴급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4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돌산·소라·율촌·화양 등 지역 15개소, 150필지를 예찰한 결과 절반이 넘는 80필지에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방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34필지(23%)에 대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벼 수확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7~13일까지 벼 생육에 큰 피해를 주는 벼멸구, 먹노린재 등 병해충 집중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낮 최고기온이 섭씨 28도 이상의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병해충 증식 밀도가 상승하는 등 잠시 주춤했던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곡성군 역시 오는 6일까지 특별방제기간을 설정해 벼멸구중점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8월 하순까지 방제작업을 마친 군은 지난 2일 예찰결과 발생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아직까지 방제가 필요한 필지가 나타나고 있어 이달 초순까지 추가 방제 작업을 실시하



로 했다. 특히 군 전체 실과장이 담당 읍·면을 정해 일제 출장을 나가 방제 작업을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단지에는 약제비와 방제비를 추가로 지원해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일반단지는 방제 효과가 높은 약제를 선택해 개별방제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조경훈 식량작물팀장은 “벼멸구는 벼대 아래에 서식하므로 방제시 충분한 약량을 살포해 벼대 아래까지 약액이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은퇴자 마을’ 곡성 강빛마을 방문객 크게 늘어

## 한일 농업관계자, 농어촌공동화 세미나... 귀농·귀촌 현장견학

은퇴자 마을인 강빛마을에 국내는 물론 일본 농촌 관계자들까지 찾고 있다.

한일 농업·농촌관계자들은 4일 오후 곡성군 곡곡면 강빛마을에서 ‘농산물 직매장 운영의 실천과 과제’, ‘농어촌공동화와 지역활성화의 과제와 현황’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전남

지역본부가 주관했으며, 일본 측 관계자 3명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고 종합토론 사회는 황민영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또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산하 한국사무소를 강빛마을에 두기로 하고 이날 현관식도 가졌다.

은퇴자마을인 강빛마을에는 이들 이외에도 견학 방문자들이 줄을 잇

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슬로푸드문화원 발표회 20여명이 찾았고, 오는 10일에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일행 40여명, 12일에는 전남대 동창모임인 율령회 회원 40여명이 강빛마을에서 모임을 갖는다.

전라남도 은퇴도시담당관 등 관련 공무원들의 방문도 매년 늘고 있다.

5일에는 농협유통 이사진이 농어촌공동화 방지와 귀농·귀촌의 시범 사례 연구를 위해 강빛마을에서 숙박하며 고현석 총장과 주민 이지복 선생(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강빛마을이 농어촌공동화와 귀농·귀촌, 고품질의 추세 속에 은퇴자의 제3기 인생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국창 송만갑과 국악여행’

## 구례군 내일 섬진아트홀서 공연

구례군은 오는 6일 섬진아트홀에서 ‘푸른 소리 가을을 춤춘다’라는 주제로 ‘국창 송만갑(사진)’과 구례인의 국악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국창 송만갑 판소리 보존회는 국창 송만갑 선생의 소리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 대중의 정서에 맞게 행사를 구성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국악인 후손을 비롯한 제자, 판소리동호인 등 500여명이 참여하며, 주요 공연으로는 명창 김일구,

김영자의 단막 창극, 가야금산조, 장고춤, 잔수농악 등이 마련됐다. 국창 송만갑 선생은 조선 말 구례읍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해 판소리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지난 2006년 발족한 (사)국창 송만갑판소리보존회(회장 이재명)는 선생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고 학술세미나 개최, 기념공연 추진 등을 통해 동편제 판소리 고장의 위상 제고와 국악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아기자기 벽화 갤러리’

## 여수시 문수2공원에 시민참여 작품 설치

시민들이 직접 ‘예술가’가 돼 공원 벽면을 미술갤러리로 바꿔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부터 부영9차 아파트 지역 유치원생, 학생, 주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든 1000여점의 아트타일 작품을 문수2공원 내 옹벽 10개 구간 설치했다. <사진>

계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벽화가 아닌 비록 솜씨는 서툰

지만 주민들 따듯함과 인정이 풍겨 인기를 끌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마치 숨은 그림 찾듯 내 그림을 찾는 재미와 타일 하나하나가 모여 탄생한 벽화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순수 벽화를 제작함으로써 주민들간 협동심을 기르고 여수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전북

##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추진단 본격가동

### 단장 부군수 등 12명 구성... 조례제정·로고공모 박차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김인호 부군수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은 관리조례 제정, 로고 공모 등을 맡게 된다. 고창군은 4일 “지난 5월 28일 파리 유네스코 회의장에서 등재가 결정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는 그동안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추진배경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실무추진단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했다. 실무추진단장 김인호 부군수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은 고창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추진단원들의 많은 고민과 연구, 창조적 발상을 통해 고창 미래의 밑거름을 그려내자”고 당부했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공모를 통해 로고(인줄마크)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각 부서별로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발굴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차별화된 로고 라벨링 부착사업을 추진,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나설 예정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물렸거라 사또 행차시다~

매년 봄과 가을 주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던 신관사도 부임행차 상설공연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시민 90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이 공연은 6년 연속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진은 올 봄 신관사도부임행차 상설공연 장면. <남원시 제공>

# 남원시, 추석대비 물가안정 총력

남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남원시는 4일 “올해 지속된 장마, 폭염, 이른 추석명절 연휴로 농산품 등의 가격이 일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7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물가안정 특별대책반을 구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6개 품목 등 상수품 21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품목 상수품은 수급상황·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

자체 홈페이지 등에 가격정보를 수시로 공개해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소비자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단속을 벌여 매점매식·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공정위 통보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추가점검 등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아프리카 살쾩이 ‘서벌캣’ 전주동물원 이달중 공개

전주동물원이 지난달 26일 입식된 서벌캣(사진) 2마리를 이달 안에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벌캣은 일명 아프리카 살쾩이라 불리며 아프리카 중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주로 서식하고 밤에 사냥을 하는 야행성 고양이과 동물이다.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으며 높은 점프력을 가진 서벌캣은 사냥 성공률이 표범이나 사자에 비해 10~20% 높을 만큼 뛰어난 사냥꾼이다. 크기는 60~100cm, 체중은 8~18kg이며 날씬한 몸매와 작은 얼굴,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진 우아한 자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주동물원 측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서벌캣을 위



해 서식환경과 비슷한 방사장을 꾸며 입식을 준비해 왔다.

동물원 관계자는 “2주 정도 적응기간을 거쳐 공개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 보기 힘든 서벌캣 같은 동물들은 지속적으로 입식해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단신

## 부안군 ‘나눔가득 농수산물 서울장터’ 참가

부안군은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나눔가득 농수산물 서울장터’에 참가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청정부안 알리기에 나섰다.

8일까지 열리는 서울장터에는 부안소평들이 부안 쌀 ‘천년의 솜씨’와 부안김, 개암죽, 부안빵, 오디와 인, 누에·오디 관련 제품 등 30여 품

목을 전시·판매한다.

또 5일~8일에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제2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10일~11일에는 도봉구청 광장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연다. 곰소젓갈, 곰소천일염, 위도멸치 등 20여 품목에 대해 전시·관측활동을 펼친다./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 전주시 완산구 서곡지구에 관광호텔 건립 추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곡지구에 11층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된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4일 서곡지구 선플러위 안의 음식점을 철거하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자문했다.

이날 심의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은 사업 추진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기 위한 주민제안이 며, 사업자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 규모는 건축면적 1260㎡, 지하 1층, 지상 11층로 객실은 121실이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해경, 내일까지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

군산 바다에서 벌어지는 응급 상황에 신속 정확히 대처하기 위한 경비함정 해상훈련이 열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부터 사흘간 경비함정 전용부두에서 올해 마지막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해상종합훈련은 연간 4차례 열린다. 이번 훈련에는 경비함정 7척에 승

조원 139명이 참여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인명구조, 비상 조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실천처분 훈련을 진행한다. 장비 준비태세를 점검, 조난선박 인명구조, 화재선박 소화훈련, 종합상황 대응훈련 등 편대기동향해, 해상 가상사격 등을 실시한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김제 등 제조업체 54% 추석연휴 5일 휴무

정읍상공회의소는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할지역인 정읍·김제·고창·부안에서 가동하고 있는 13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가동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휴무기간에 대해서는 5일간 휴무하는 업체가 54%로 가장 많았고, 3~4일 휴무하는 업체도

39%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동안 공장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1%업체가 가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추석 상여금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3%의 업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